

메시 없는 바르셀로나, 호날두의 유벤투스에 3-0 완승

등록 2021.08.09 10:03:27



[바르셀로나=AP/뉴스시스]리오넬 메시가 떠난 바르셀로나가 호날두가 된 유벤투스에 완승을 거뒀다. 2021.08.08.

[서울=뉴스시스] 안경남 기자 = 리오넬 메시가 떠난 FC바르셀로나(스페인)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된 유벤투스(이탈리아)와 프리시즌 경기에서 승리했다.

바르셀로나는 9일(한국시간) 스페인 요한 크루이프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의 주앙 감페르 트로피에서 3-0으로 이겼다.

주앙 감페르 트로피는 바르셀로나 구단이 창립자인 주앙 감페르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초청 대회다.

메시 없이 2021~2022시즌을 준비하는 바르셀로나다. 앞서 메시가 바르셀로나와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팀을 떠나게 됐다.

메시는 8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.



[바르셀로나=AP/뉴스시스]메시 바르셀로나 고별 기자회견. 2021.08.08.

바르셀로나는 메시의 공백에도 호날두가 된 유벤투스를 제압했다. 전반 3분 만에 이적생 멤피스 데파이가 선제골을 터트렸고, 후반 12분에는 마르틴 브레이스웨스트가 추가골을 넣었다.

바르셀로나는 후반 추가시간 리키 푸치의 썬기골로 3-0 승리를 마무리했다.

호날두는 공격 포인트 없이 전반만 뛰고 교체됐다.

한편 바르셀로나는 오는 16일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새 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.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knan9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